

# 금감원, 5조6천억원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한다

### 은행별 대출 종류·규모·건전성 파악...전수조사 착수 담보 초과 대출 1만2498건, 1조4953억원 부실 우려

문제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

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금감원도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

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감독교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

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000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도 1조4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 또한 1조49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 부족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기국회 본궤도...여야 본격 힘겨루기

### 조특법-노란봉투-양곡관리법 양당간 이견...법안처리 난항 예상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입법·국감·예산 등을 놓고 21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 등의 뇌관까지 산적해 있다 보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 국회에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과 예산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일찌감치 이번 정기국회의 키워드를 '약자-민생-미래'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중립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 지원 목적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기치로 내걸고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는 한편 거야(巨野)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

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 7대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조특법의 경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및 양곡관리법 등은 국민의힘이 각각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양당 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이견이 산적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실제 성사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복송 등 사건을 추궁하겠다는 '맞불 카드'를 내놨지만, 이 역시 민주당에서 팔짝 뛰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준석 신당 창당시 35.9% '지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아 당을 나갈 뒤 창당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0% 중반대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전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고 묻은 결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5.9%,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6.0%로 각각 나타났다.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은 17.3%였고 '지지할 수 있다'는 18.6%였다.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 32.2%였고,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는 23.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하지 않

겠다는 응답이 67.6%로 조금 더 높았다. 28.9%는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54.1%가 '잘못했다', 37.4%가 '잘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56.0%는 '잘했다'고 응답했고, 38.5%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못했다'가 69.5%, '잘했다'가 22.1%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88.4%) 자동응답(ARS)과 유선(11.6%)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尹 대통령, 첫 유엔 무대에서 11분 연설... '자유' '연대' 강조

### 배정시간보다 4분 짧아...박수 7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1시 51분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통상 각국 정상에 배정된 연설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11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다. 연설 중에는 박수가 총 7회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

겠다"며 연설을 맺자 각국 정상이 10초가량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장 특별석에서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 김 여사는 갈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쳤다.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들은 유엔총회 연설 자리에 함께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지켜봤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이날 김 여사와 함께 특별석에 앉았다. 유엔총회장 11번째 줄 한국 대표단 자리

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황준국 주유엔대사 등이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냈다. 4층 발코니석에는 강인선 해운진흥공사 사장 등 우리측 관계자들이 연설을 지켜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